

강진군, 지역 청년 주거·생활안정 지원 박차

매달 최대 25만원 3년 간 주거비 기준중위소득 60~160%이하 대상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등 사업 추진 “청년들의 희망찬 미래 건설 주력”

강진군이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며 주거안정 지원에 나섰다.

21일 강진군에 따르면 오는 2월7일까지 ‘2025년 강진품에 청년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전세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강진군 전입후 3개월이 지난 19~45세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60~160%이하,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대상자 등은 제외하며 사업에 선정될 경우 매월 최대 25만원까지 주거비를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확대 요청에 따라 전년 대비 대상자를 10명에서 144명까지, 지원금액을 월 최대 10만원에서 25만원까지, 지원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원사업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강진군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후 신청서류를 구비해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강진군은 이와 더불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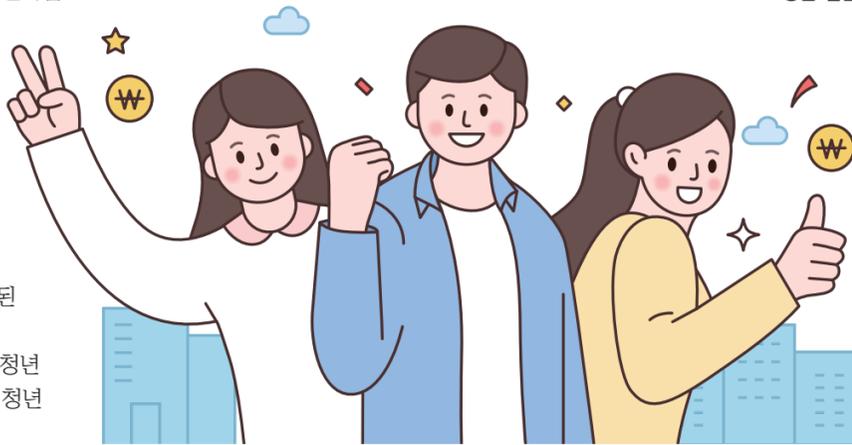
디딤돌통장, 일자리 장려금, 창업 청년 지원,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 가업승계 지원 등 자산 형성 및 취업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2025년 강진품에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청년팀(061-

430-3077)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수 군비를 투입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강진품에 청년 주거비를 지원한다”며 “청년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꿈을 이루고 강진에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설 연휴 해양오염 사고 막는다 서해해경청, 방제 대응체제 강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설 연휴를 맞아 오늘 24일까지 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 및 방제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21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기름을 대량으로 보관하는 해양시설(64개소), 장기 계류선박(65척), 묘박지 급유작업선박 등 해양오염 취약개소에 대한 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을 벌인다.

설 연휴 기간 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 및 항·포구에 대해 방제정 순찰을 강화하고 방제지원센터 방제장비 긴급동원 등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해 대응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휴가 6일로 장기 휴일임을 감안해 지자체·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오염 협력기관·단체와 비상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오염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대응으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황토고구마 30% 할인기획전 맛뜰무안물, 24일까지

무안군은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뜰무안물’에서 황토고구마 30% 할인 기획전을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1일 무안군에 따르면 행사 기간 고구마 전 품목을 3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고 신규 회원에게 2000원 쿠폰이 추가로 지급된다.

무안고구마는 게르마늄이 풍부한 붉은 황토와 해풍 등 생육에 이로운 환경에서 재배돼 당도가 높고 견고하며 저장성이 뛰어나며 따라 전국에서 고품질 고구마로 인정받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앞으로 맛뜰무안물 활성화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가치와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이번 기획전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안=김행언 기자



신안군 자은면 자원봉사자회원 20여명이 관내 한 가정에서 청소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집안 내 적체된 생활쓰레기와 장기간 방치된 물건 5톤가량을 수거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자은면 자원봉사자회, 취약계층 청소 봉사

신안군 자은면 자원봉사자회는 최근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내 어려운 가정을 위한 청소 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의 수혜 가구는 부모와 자녀 4명으로 구성됐던 가정으로, 최근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현재 심장 수술 후 회복 중이다.

자녀 중 아들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돌봄의 손길이 절실했다.

이날 회원들은 집안 내 적체된 생활쓰레기와 장기간 방치된 물건 5톤가량을 수거했다. 정리되지 않은 아버지의 유품을 수습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집안 살림살이를 정리, 생활에 필요한 침구류와 생필품도 전달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김경희 신안군 자은면 자원봉사자회장은 “작은 손길이지만 이 가정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부일 자은면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이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자은면 복지증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맞춤형 복지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완도군, 2026 국제해조류박람회 준비 박차

용역 보고회 개최

완도군은 지난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고회는 신우철 군수를 비롯해 부서장, 용역사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 기본 구상에 대한 용역사의 최종 보고와 함께 토론 및 질의응답,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열린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청정바다 완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해조류의 가치와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해조류산업의 발전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2017년 박람회에는 94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국가적으로는 해조류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김이 수출 효과 상품으로 떠오르는 등 수산물 수출에도 기여한 바 있다.

이에 군은 해조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8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유치

를 위한 사전 행사로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기후 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의 미래’를 주제로 오는 2026년 5월2일부터 7일까지 완도군 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박람회는 해조류 이해관, 주제관, 산업관 등 4개의 전시관과 국제 해조류 심포지엄, 수출 상담회 등이 어우러진 산업형 박람회가 될 예정이다.

군은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해양수산 관계 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해 박람회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완도=정태영 기자

해남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공동체 복원·지역 활성화 목표

해남군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 자원을 보전하고 공동체 정신을 복원하기 위한 ‘청정전남&해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정전남&해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훼손된 마을 환경을 정비해 해남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공동체 복원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개소당 500만원씩 3년간 지원하게 된다. 주로 꽃밭 조성, 벽화 그리기, 우체함 교체, 문패 교체, LED조명 설치, 마을 지도 제작, 마을 우물 정비 등 마을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신규 으뜸마을 35개소를 발굴하고 2년차 마을 41개소, 3년차 마을 50개소로 총 126개소의 으뜸마을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오는 2월 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해남군 관계자는 “ 으뜸마을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을 통해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지역에 활력을 가져오는 사업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며 “올해도 으뜸마을 사업을 적극 추진해 공동체 복원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해남군,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모집 영농정착... 내달 5일까지 접수

해남군은 지역 차세대 농업리더 육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오는 2월5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이 성공적인 농업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경력 3년 미만인 만 40세 미만의 예비농업인이나 독립영농 경력 3년 이하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최대 3년간 월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각 가구당 최대 5억원의 정책자금 융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89명을 포함,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전남 최대 규모인 276명의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청년농업인 육성 우수기관 평가에서 전국 시군 중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젊은 농부 육성으로 농업 부문과 농촌 공동체의 지속적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진일보
@ji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jinilbo.com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